

전기계 및 회원사 동정

윤상직 산업부,
창조경제 통한 성장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김재홍,
한진현 실장 내정

한진,
베트남 화력발전 수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취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장관업무에 돌입한 윤 장관은 오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 정책은 안전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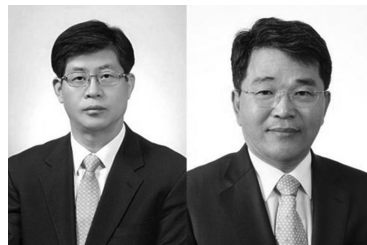
에너지 공급체계를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고 해외자원개발도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 장관은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시해 운영하고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13개 부처 차관인사 단행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을, 2차관에는 한진현 무역투자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김재홍 실장(행시 26회)은 대구 출신으로 중앙고,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와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쳤으며, 정책기획관과 투자정책관, 신산업정책관 등을 거쳤다.



김재홍 1차관

한진현 2차관

한진현 실장(행시 25회)은 전남 출신으로 전남고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제학 석사와 캔자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쳤으며, 에너지산업정책관과 무역정책관,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부장) 등을 거쳤다.

● 프랑스·일본 등 제쳐...23억弗 규모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프랑스 일본 등 경쟁국 발전사업자들을 제치고 베트남에서 23억 달러(약 2조6000억 원) 규모의 대형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따냈다.

한전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국제 입찰로 발주한 1200MW 용량의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BOT)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한전이 해외에서 1000MW 이상의 대형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응이손에서 진행하는 민자발전 프로젝트(IPP)로 유연탄을 발전 연료로 사용한다. 한전은 일본 마루베니상사와 50 대 50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프랑스 EDF사와 IP수에즈(프랑스)·미쓰이(일본) 컨소시엄을 누르고 사업을 따냈다. 23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비는 한국수출입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내년 8월까지 재원 조달을 마무리 짓고 발전소 건설에 착수, 2018년 8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전은 2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며 베트남 전력 공사에 전력을 판매한다. 25년간 전력 판매로 예상되는 매출은 총 15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이 발전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국내 전력 관련 기업들의 해외 동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靑 “정부부처 약칭 이렇게 불러주세요”

기획재정부 → 재정부, 여성가족부 → 여가부, 안전행정부 → 안행부, 해양수산부 → 해수부

박근혜 정부의 정부부처 약칭이 결정됐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개별 부처별로 선호하는 정부부처 약칭을 건네 받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 전달했으며 부처 이름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부부처 약칭을 놓고 국민들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조속히 최종 명칭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을 이전 받게 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로 불리게 된다. 산자부, 산통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었지만 단어가 주는 어감을 반영해 산업부로 결정하게 됐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신설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부’로 불리게 된다. 미창부, 미창과부 등은 근혜노믹스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창조경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경제부총리가 겸임을 하게 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로 낙점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

정부 조직에

'전기' 명칭 부활

에너지소비총량제,

3000㎡이상 건물로 확대

기재부, 재정부 등으로 신문과 방송에서도 혼용되었지만 재정부로 결정됐다.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이름 앞뒤가 바뀐 안전행정부는 '안행부', 신설 되는 해양수산부는 '해수부'로 불리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내 '전자전기과' 탄생

정부 조직에 '전기'라는 명칭이 부활한다.

2006년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가 반도체디스플레이과로 개편되면서 정부 조직에 '전기'라는 명칭이 사라진지 7년만의 일이다.

국회가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면서 17부3처17청의 정부 조직이 확정됐다.

전기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는 산업, 통상, 에너지 등 3대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98년 산업자원부로 개편되면서 넘어간 통상업무를 15년 만에 되찾아오게 됐다. 실물경제를 주관하는 부처로 재탄생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전기산업을 전담하는 주무부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개편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산업은 제1차관 산하 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내 '전자전기과'에서 전담한다. 시스템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전자전기과를 비롯해 자동차항공과, 조선해양플랜트과, 로봇기계과 등이 자리하게 된다. 전기산업이 조선, 자동차 등과 함께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산업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전기기를 포함한 전기산업을 담당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과는 폐지된다.

전기산업은 그동안 내수위주의 전통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최근 들어 수출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와 2차 전지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담부서가 없어 사무관 1명이 전기산업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뒤쳐졌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전자전기과 탄생으로 인해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에서 3,000㎡ 이상 건물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해 연간 에너지소비 총량을 특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건축물에만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적용했다.

시는 또 외벽과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도 법적 기준보다 최고 45%까지 강화했다. 아울러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시민의 관리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새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달 28일 대전 전력연구원에서 조환익 사장을 비롯한 10개 전력그룹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기술 성과전시관 개관식 및 R&D 결과 발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한 우수성과는 △화력발전소 통합제어시스템 △스마트 배전운영 시스템 △국내외 주요 전력설비 기술지원 사례 등이다.

화력발전소 통합 제어시스템은 복잡한 개별 제어시스템 문제를 해결했다. 외산을 대체할 경우 국내 표준화력발전소 25기에 투입되는 2500억 원 가량의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스마트 배전운영시스템은 자기복구 기능과 배전선로 전압변동 및 품질저하 방지 기능 등을 보유한 첨단 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용률이 기존대비 2배 이상 높아 북미나 중동지역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 교류회에서는 한국남부발전 등 10개 전력그룹사와 R&D 협력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전과 송배전, 화학환경, 전력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총 7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조환익 사장은 “전력기술 R&D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 전력그룹사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전력산업계 기술협력 및 교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성과 전시관 오픈

한국남동발전 '2020

동반성장 비전' 선포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와 지난달 7일 영흥화력본부 강당에서 'KOSEF 2020 동반성장 비전'을 선포했다. 2020 동반성장 비전은 글로벌 강소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수출 500만달러' '구매 1500억원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부발전, 파키스탄

수력발전 진출 새 지평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은 지난달 5일 서울 대치동 본사 회의실에서 파키스탄 수력발전(500MW급) 건설·운영사업을 위한 국내 사업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과 김 윤 대림산업 부회장,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김수관 포스코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2011년 10월, 파키스탄 정부가 최초로 시행한 496MW급 정부·민간 공동개발 수력발전 입찰사업이다. 중부발전은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을 보증한 사업으로 세계은행 및 글로벌개발은행으로부터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서발전, 국내 회사채

발행 사상 최저금리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은 지난 13일 2.73%에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이는 국내 회사채 발행 역사상 최저금리라고 14일 밝혔다.

발행규모는 총 3000억 원으로 2000억 원은 3년만기, 1000억 원은 5년 만기다. 3년만기 2000억 원은 현재 기준금리 2.75%보다 낮은 2.73%에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동서발전은 통상 AAA급 회사채 대비 0.06% 낮은 수준에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약 4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했으며, 발행대금을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 투자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전KPS(사장 태성은)가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정비 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전KPS는 지난달 11일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 발전정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사를 개소식을 열었다. 이로써 한전KPS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4번째 해외지사를 갖추게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강재열 한전KPS 신성장사업본부장과 이운주 남아공 한국대사, 김병삼 코트라 지부장을 비롯해 현지기업 관계자와 국내 진출 EPC(설계·구매·시공)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재열 한전KPS 신성장사업본부장은 “한전KPS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와 환경에 적합한 고객맞춤형 플랜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지사 설립을 계기로 한전KPS만의 차별화된 플랜트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아프리카 전력시장의 기반 확대와 해외사업의 현지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전KPS는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화력 O&M(운전 및 정비) 사업과 남아공 투투카 화력 계획예방정비공사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전KPS,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사 개소

현대건설 UAE에...

2조1119억 원 공사수주

현대건설(사장 정수현)이 중동에서 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해외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현대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해상 유전 운영회사에서 발주한 18억 9442만 달러(한화 2조1119억 원) 규모의 '사브 해상 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해저 유전지대인 사브의 86개 유정에서 생산된 원유를 모아 이송하기 위한 집하 및 이송 설비인 원유 집하 배관망, 화학물질 주입설비 등을 해상 2개의 인공섬에 건설하는 공사다.

현대건설은 집하·이송 설비 외에 사브 유전 및 옴알룰루 유전에서 각각 생산돼 수중 배관망을 통해 이송된 원유를 가스와 분리해 처리하는 시설을 지르쿠섬에 건설하게 된다. 지르쿠섬에 시공되는 원유 및 가스 처리시설의 용량은 하루에 원유 20만배럴, 가스 3500만 입방피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사 수주를 통해 현대건설은 미개척 분야이면서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해양플랜트 공사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이번 공사 수주로 아부다비 해상 유전 운영회사와 첫 계약을 맺었다"며 "합산5 가스처리시설, 보로지3 동력·간접시설 공사 및 원전 건설공사에 이어 이번 공사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UAE 플랜트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2개의 인공섬과 지르쿠섬의 공장 설비에 대한 설계, 조달, 공사, 시운전 전 과정을 일괄턴키로 수행하게 되며, 공사기간은 54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올 들어 쿠웨이트 무바락 알 카비르 항만공사(7291만 달러), 싱가포르



포르 매립공사(1억4431만 달러), 인도네시아 송전선공사(6128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발전소공사(8억2400만 달러) 등 총 31억5000만 달러를 수주했으며 올해 목표는 110억 달러다.

효성(회장 조석래)이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다.

효성은 지난달 11일 아프리카 동남부 모잠비크공화국에서 총 930억 원 규모의 전력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효성이 수주한 사업은 모잠비크 신재생에너지청의 1.3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과 국영전력청의 송·배전 선로 건설, 변전소 증설·신설 사업 등 3가지다.

효성은 오는 2014년 말까지 마바고, 무엠베, 메쿨라 등 모잠비크 북부의 전력 고립지역 3곳에 각각 400~500kW급 태양광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설치하게 된다.

효성은 완공 후 1년간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에도 참여한다.

효성은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백흥건 전력사업부(PU) 부사장은 “이번 사업 수주는 효성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의 제품과 턴키 공사의 기술경쟁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며 “이를 발판으로 추후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 정자 앞바다 7MW급 풍력발전기 28기

SK건설이 울산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짓는다.

SK건설은 한국전력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96MW급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사업계획을 울산시에 제안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총 사업비 8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소다. 생산전력이 1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을 전망이다.

울산 해상풍력발전소는 울산 북구 정자 앞바다 육상에서 2.5km 떨어진 해상에 7MW급 풍력발전기 28기를 세우고, 해저(30km)와 지상(6km)에 총 36km에 달하는

효성, 930억 원

모잠비크 전력사업 수주

SK건설,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소 시공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SK건설 컨소시엄이 발전소 시공부터 운영 및 전력판매까지 일괄해 맡는 'BOO' 방식으로 추진된다.

SK건설은 지난해 9월 기초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뒤 울산시와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소는 오는 2015년 착공에 들어가 2017년부터 발전시설이 노후화될 때까지 25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내에서 제주도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기는 제주도의 2MW, 3MW 규모 2기가 전부다.

이충우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장은 "이번 해상풍력발전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향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창출과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지역사회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S전선, 세계에서

가장 가는 7.0mm

랜 케이블 개발

● **외경 7.0mm의 10기가비트급 랜케이블로 시장공략**

LS전선은 세계에서 가장 가는 10기가비트급 랜(근거리통신망)케이블을 개발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신제품은 외경 7.0mm로 기존의 제품에 비해 가볍고 설치가 용이한 게 장점이다. 포설공사에 필요한 공간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랜케이블은 국제표준 규격인 카테고리 등급(이하 CAT으로 표기)으로 나뉜다. 일반가정에서는 CAT5(100Mbps 전송)나 CAT5E (400Mbps 전송)가 많이 쓰인다. 이번에 LS전선이 개발한 케이블은 CAT6A 등급으로 10기

가비트까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하이엔드급 제품이다.

이 제품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 연구소 · 공항 · 의료시설 등 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LS전선은 국내의 주요 데이터 센터와 시설을 비롯해 중국 ·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LS전선 김형원 상무(통신 · 산업전선 국내영업부부장)는 “네트워크 케이블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20~25년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10기가급 랜 케이블을 도입하면 관리와 운영 차원에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LS전선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케이블 제품은 물론 각종 접속자재의 설계 · 개발 · 제조를 포괄하는 글로벌 일류 네트워크 케이블링 솔루션 공급자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